

힝클리 대관장, 성전 헌납하고 미국과 유럽 회원들 만나

사진 출처: 라이버드 영 디플루 박사 / Church News 제공



유럽을 여행하는 동안 영국의 개드필드 엘름 예배당에서 회원들에게 말씀하는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10일에 걸친 유럽 순회 중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새로운 덴마크 코펜하겐 성전을 헌납했으며, 영국 제도와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에서 회원들에게 말씀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는 뉴욕의 맨해튼 성전을 헌납했다.

덴마크

2004년 5월 23일, 힝클리 대관장이 덴마크 코펜하겐 성전을 헌납할 당시 3,400명이 넘는 회원들은 네 차례에 걸쳐 열린 모임에 직접 또는 위성을 통해 참여했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그리고 스웨덴의 일부 지역에 있는 회원들이 이용할 이 성전은 1931년 존 에이 윗소 장로가 헌납했던 원래의 건물에 자리를 잡고 있다.

힝클리 대관장은 헌납식 하루 전에 열린 영적인 모임과 문화 축제에 참석해 회원들을 만났다.

영국

5월 25일, 힝클리 대관장은 영국 각지의 스테이크 센터에 모인 회원들에게 위성을 통해 말했다.

다음날, 힝클리 대관장은 개드필드 엘름 예배당에 대한 중서를 받았다. 이 예배당은 원래 모라비아교의 전 회중이 교회에 입교했던 1840년에 교회에 주어진

것이었다.

프랑스

5월 28일, 힝클리 대관장은 컨벤션 홀에서 프랑스 회원들과 모임을 가졌다. 그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 곳에 성전을 가질 수 있다고 발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성전을 건축할 적절한 장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저는 언젠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집이 이 땅에 은혜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끝으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충실히 프랑스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스페인

예언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온 약 8,000명의 회원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모두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간증한 후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오늘 아침 [열차 한 대에서] 폭탄이 터진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떠올리며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우리가 모두 형제 자매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날 수 없을 텐데,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텐데.’”

뉴욕

힝클리 대관장은 6월 13일 네 번에 걸친 모임에서 뉴욕 맨해튼 성전을 헌납했다.

힝클리 대관장은 헌납 시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다. “이 거대하고 시끄러운 대도시 가운데 이 성전이 조용한 피난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곳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세상으로부터 당신이 거하는 곳으로 들어왔다는 느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힝클리 대관장은 또한 유명한 라디오 시티 뮤직 홀에서 교회 회원들이 준비한 한 축전에 참여해 말씀을 전하기도 했다. ■

기사 제공: 치치 뉴스

데이비드 브루스 헤이트 장로

현신적인 제자

1906년 9월 2일~2004년 7월 31일



젊

었을 때 데이비드 비 헤이트는 두 번의 사고를 통해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한번은 난폭한 말이 끄는 마차에서 튕겨 나왔을 때이고 다른 한번은 물가에서ダイ빙하면서 머리를 부딪혔을 때였다. 아들 로버트는 이렇게 말했다. “제 생각에 주님께서는 [하나의 큰 목적을 위해] 젊은 시절에 부친의 목숨을 지켜 주신 것 같습니다.”(로널드 이 폴먼,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다른 사람을 들어올려 주는 기쁨”, 성도의 벗, 1987년 9월호, 19~20쪽에서 인용)

참으로 주님은 젊은 데이비드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 훗날 그는 십이사도 정원회에 부름을 받았으며, 결국 97세에 이르게 되어, 교회 역사상 가장 연로한 사도가 되었다. 사도로서의 그의 봉사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난 2004년 7월 31일에 막을 내렸다. 8월 5일 템플 스퀘어의 태버내클에서 열린 장례식에서 그는 현신적인 사도로 기억되었다.

강한 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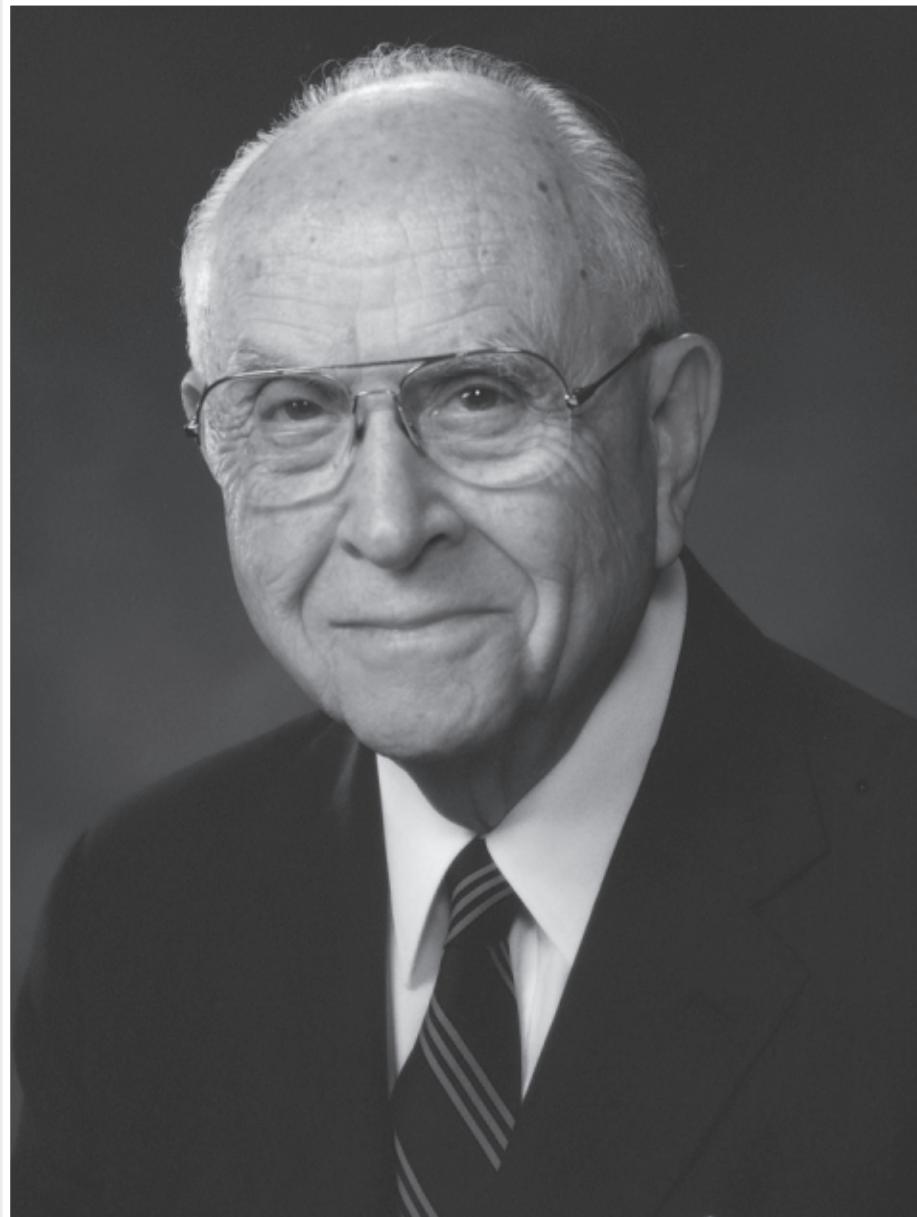
대관장단은 언론에 제공한 보도 자료를 통해 헤이트 장로가 “자신

의 신앙의 선포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실재에 관한 간증으로 세상 곳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말했다. “그 분은 그런 간증을 여러 대륙에 전해 왔으며, 그가 사랑했던 교회에서 영향력을 미쳐 왔습니다. … 그 분을 떠나 보내면서 우리는 그 분의 사랑하는 동반자 루비와 그 자녀분들에게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헤이트 장로는 연차 대회에서 즉석 연설로 유명했는데, 그 말씀은 현실적인 이야기와 복음의 참됨에 관한 자신의 깊고도 지속적인 간증의 표현으로 가득 찼다. 가장 최근의 대회였던 지난 4월 대회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선언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와 같이 우리도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 복음은 참됩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증인입니다.”(“하나님 치혜와 사랑”,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6쪽)

굳은 결심과 사랑

데이비드 브루스 헤이트는 1906년 9월 2일 아이다호 주 오클리에서 헉터 시 헤이트와 클라라 터틀 헤이트의 자녀로 태어났다. 유년 시절에 그는 질병으로 인해 아버지와 네 명의 형제 자매의 죽음을 지켜



옆쪽(왼쪽부터): 대학 시절의 데이비드 비 헤이트. 뉴시를 즐기는 헤이트 장로, 1969년. 데이비드 비 헤이트 소령은 제2차 세계 대전 동안의 군복무로 표창을 받았다. 위: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보았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이런 아픔은 인생에서 역경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과 이해를 그에게 가져다주었다. 그런 어려운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를 “시골 마을에서 성장한 전형적인 소년”이라고 표현했다.(Gerry Avant, “Elder Haight Recognized What Really Is ‘Great Moment’ in Life”, *Church News*, 1985년 11월 24일, 5쪽에서 인용)

교회가 그의 생애 동안 중요한 영향을 미쳤지만, 복음에 대한 그의 결심의 전환은 미해군에서 소령으로 근무하던 제2차 세계 대전 동안에

일어났다. 캘리포니아에 가족을 두고 하와이의 호놀룰루로 가는 비행기의 뒷편에서 그는 자신의 생활을 다시 살펴보고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비록 그 이전에 교회의 많은 부름에서 봉사도 하고, 감독단에서 봉사한 적도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했어야 했던 만큼 헌신적이지는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항구의 부두에 두고 온 제 가족을 생각하면서, 저는 종종 그 때가 아마 저만의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는 훗날 말했다. 그는 또한 “주님으로부터 온 부름에 대해 결코 의문을 갖지 않겠다고 완전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 전쟁에 참여해서 제가 살아 남는다면 얼마 되지 않는 재능일지라도 왕국을 건설하는 데 다 바치겠다고 결심했습니다.”라고 말했다.(*Church News*, 1985년 11월 24일, 5쪽에서 인용)

그는 훗날 캘리포니아 팔로알토 스테이크장으로, 스코틀랜드 선교부장으로, 1970년 4월에 십이사도 보조로 부름 받기 전까지 지역 대표로 봉사하면서 그 약속을 지켰다. 1976년 1월 8일에 그는 사도로 성임되었다.

헤이트 장로는 그에게 주어지는 부름에 관계없이 복음 생활의 정수는 사랑, 즉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한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주님은 네가 감독이든, 스테이크장이든, 사도이든, 상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네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실 것이다.”(성도의 벗, 1987년 9월호, 22쪽에서 인용)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면서 다른 사람의 필요 사항을 파악하는 헤이트 장로의 능력에 관해 말씀했다. “헤이트 장로는 수영에 경험이 많았던 한 젊은이에 관한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 그는 전복된 카누에서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 젊은이의 가족에 관해 알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은 그 가족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영안실을 방문해서 자신의 애도하는 마음을 미망인과 그 젊은이의 부모에게 전했다. 그들에



위: 가족과 함께한 헤이트 장로와

자매. 오른쪽 위: 손자 브렌트

헤이트 장로와 함께. 오른쪽 아래:

헤이트 장로는 여러 연차 대회

말씀을 통해 복음에 대해 강한

간증을 했다. 맨오른쪽: 헤이트

장로와 아내 루비, 2003년

6월.



대한 헤이트 장로의 관심은 부모가 교회에서 활동화 되는 계기가 되었다. 훗날 헤이트 장로는 세상을 떠난 그 젊은이를 포함하여 세 아들들을 그들의 부모에게 인봉하는 의식을 성전에서 집행했다.(Lucile C. Tate, *David B. Haight: The Life Story of a Disciple* [1987], 288쪽 참조)

74년간의 연애

헤이트 장로의 많은 말씀에는 사랑하는 아내 루비에 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 청년 데이비드는 다른 젊은 여성과 함께 참석했던 무도회에서 루비 올슨을 처

음으로 보았다. 그와 데이트 상대가 무도회의 다른 참석자들을 살펴보았을 때 “[그가] 인생에서 보았던 가장 사랑스러운 소녀가 데이트 상대와 춤을 추면서 곁으로 다가왔다.” 데이비드는 빨간 드레스를 입은 활달한 아



가씨가 춤추는 모습을 여러 차례 바라보다가 데이트 상대에게 그녀가 누구인지를 아느냐고 물었다. 데이트 상대는 그녀가 자기 학교 여학생 클럽의 회원이라고 대답했다.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 친구를 얻거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아니지만 저는 제 데이트 상대에게 루비를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라고 헤이트 장로는 회상했다.

그런 소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얼마 후 데이비드가 관리하는 상점의 공석이었던 자리에 루비가 지원했고 그녀는 고용되었다. 그가 루비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을 때, 그녀는 이미 그 날 저녁에 데이트 약속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다. “저는 그녀의 데이트 상대가 몇 시에 오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여덟 시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섯 시에 제가 찾아가면 어떨까요?’라고 말했습니다.”(Church News, 1985년 11월 24일, 5쪽에서 인용)

얼마 후 다른 데이트 상대들을 제치고 두 사람만이



데이트를 하게 되었으며, 결국 두 사람은 1930년 9월 4일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다. 그들의 구애는 거의 74년의 결혼 생활 내내 지속되었다. 헤이트 장로의 비서인 린다 텔리는 올초에 헤이트 부부를 방문했을 때 겪었던 경험을 기억하고 있다. “가정부가 안내를 해서 들어갔더니 조용히 하라는 시늉을 하며 ‘거실을 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헤이트 장로와 자매가 있었는데, 헤이트 장로가 몸이 편찮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거실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가장 감미로운 모습들 가운데 하나였다고 생각됩니다. 당시 장로님은 97세, 헤이트 자매님은 93세였는데, 음악 없이 거실에서 춤을 추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음악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음악이 있었던 것입니다.”

헤이트 장로와 자매에게는 세 명의 자녀, 열여덟 명의 손자녀, 일흔여덟 명의 증손자녀가 있다.

경력

헤이트 장로는 오랜 성공적인 경력을 갖고 있다. 그는 유타 주립 대학교에서 학업을 마쳤으며 유타,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주에 있는 여러 백화점의 관리 및 경영 직책에서 일하다가, 1950년대에는 일단의 소매 상점을 소유하게 되었다. 1959년에서 1963년까지 캘리포니아 팔로알토 시의 시장이었으며, 두 번째 임기 중에 스코틀랜드 선교부장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선교부장으로 봉사한 후에 헤이트 장로는 유타 주 프로보에 있는 브리감 영 대학교 총장 보조로 일하다가 십이사도 보조로 부름을 받았다.

의로운 생활

헤이트 장로의 유산은 후손들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간증과 신앙에 의해 고무되어 온 모든 교회 회원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다. 연차 대회 말씀에서 그는 회원들에게 “마음속에 그러한 간증과 소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 우리가 믿는 바를 설명해 주고 의[로운] … 삶을 살며 인류의 모범이 되[고] … 우리의 말뿐 아니라 행동 …으로 인해 이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할”(“신앙, 헌신, 그리고 감사”,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42쪽) 것을 촉구했다. 헤이트 장로는 자신이 가르친 바에 따라 생활했던 본보기였다. ■

사도들의 기억 속에 자리한 사랑 받았던 사도

연사들은 장례식에서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찬사를 보냈다.

고든 비 힙클리 대관장: “그 분은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따라서 모두가 형제 자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분은 또한 종파와 무관하게 알고 계셨던 모든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마음속에 품고 계셨습니다. … 또한 살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성을 간증하는 사도로서의 자신의 위치와 책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모나지 않은 성격과 영혼이 깨끗한 분으로 흄 없는 성격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 분은 또한 온 마음과 영혼으로 주님을 사랑하셨으며,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온 힘을 다해 그분께 봉사하셨습니다.”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그 분의 위대한 업적은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제자로서 사람들 사이에 계셨다는 점입니다. … 수많은 사람들은 그 분만의 독특한 배려를 통해 직접적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분은 옳은 일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죽음은 생의 필수적인 한 부분입니다. … [헤이트 장로님]은 이제 낙원에 계십니다. … 우리는 낙원이 어떤 곳이며, 헤이트 장로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지 알고 있습니다. … 하나님, 고(故)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성취된 약속

1926년 7월 6일~2004년 7월 21일



제 2차 세계 대전 당시 빗발치는 적의 포화 속에서 젊은 병사
닐 에이 맥스웰은 주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 주신다면 여
생을 주님을 위한 봉사에 바치겠다고 약속했다.

주님은 그의 생명을 지켜 주셨다.

젊은 닐은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

거의 60년 후인 2004년 7월 21일, 8년에 걸친 백혈병과의 투병
끝에 주님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애쉬 맥스웰 장로를 이 세상에서의
봉사에서 해임하였다. 그는 향년 78세를 일기로 생을 마쳤다.

일생에 걸친 봉사

“이 훌륭한 지도자의 죽음으로 교회 역사의 한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충실한 지도력으로 가득한 30년 이상의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라고 고든 비 힙클리 대관장은 말했다. “교회와 조국을 위한 맥스웰 장로의 평생 봉사는 국경을 넘어 전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가정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1981년 사도로 부름 받은 맥스웰 장로는 사도의 부름 23주년에 사망했다. 그 부름을 받기 전에 그는 십이사도 보조로 2년, 그리고 칠십인 회장단에서 5년 동안 봉사했다. 맥스웰 장로는 또한 감독, 교회 교육감, 본부 청남 임원, 지역 대표로도 봉사했다.

맥스웰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는 한, 얼

마간의 시간은 다른 사람들을 돋는 데 할애해야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한, 우리는 남에게 칭찬과 격려를 주어야 합니다.”(“Research Foundation Honors Elder Maxwell”, *Ensign*, 2002년 8월호, 77쪽)

각광 받지 못하는 곳에서의 봉사

7월 27일 템플 스퀘어의 태버내클에서 열린 장례식에서 아내 콜린과 네 자녀, 스물네 명의 손자녀, 두 명의 증손자녀들에 대한 맥스웰 장로의 봉사가 언급되었다. 그는 클라렌스 에이치 맥스웰과 엠마 애쉬 맥스웰 사이에서 태어났다.

맥스웰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국회, 의회, 정부 기관,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수고와 노력이 각광 받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비범한 일은 가정과 가족이라는 별로 각광 받지 못하는 곳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자주 행하고 있습니다.”(*That My Family Should Partake* [1974], 122쪽)

맥스웰 장로는 비범한 일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보았다. 그는 자신의 가족에 초점을 두었다. 아들 코리는 추도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부친께서 자신의 성역에 있어 지대한 현신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아버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시간을



반대편 쪽(왼쪽부터): 1944년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육군 병사로, 돼지를 키우는

동안 받았던 수많은 리본들. 1947~1948년 동부 캐나다에서 선교사로. 위: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 장로.

보내는 것을 좋아하셨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맥스웰 장로는 거의 54년을 함께 지낸 아내에 대해 그리고 그녀의 “영적인 직김”에 대해 종종 깊은 찬사를 보냈다. 그는 아내의 봉사에 대한 커다란 열의와, 인정 받는 것에 대해 별 관심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해 언급하며 아내가 자신보다도 “더욱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 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

맥스웰 장로는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감명 깊게 표현하는 그의 능력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는 인상적인 구절을 만드는 자신의 재능을 일찍이 발견했으며 78년 동안 약 30권의 저서와 셀 수 없이 많은 말씀을 썼다. 영감을 받아 그는 수백 만의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말씀의 달인이 되었다.

헝클리 대관장은 추도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그가 입을 열었을 때, 우리 모두는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의 천재성은 근면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는 각 구절과 문장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모든 의미들을 뽑아 내겠다고 결심한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각 말씀이 명연설이었으며 각 저서는 반복해서 읽기에 손색 없는 역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의 봉사

정치학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받은 맥스웰 장로는 사회 경력의 첫발을 정치계에서 내딛었으며, 수도 워싱턴에서 입법 보조로 일하다가 나중에는 유타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가르쳤다. 한번은 정치가로서 입후보 해보라는 권유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맥스웰 장로는 초기 경험을 통해 “복음에 있는 한 보호적인 원리에 따라 사는 것이 정부에서 실시하는 수천 가지의 보상 프로그램보다도 더 낫고, 그 프로그램은 너무도 많은 경우에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의 갑판에 있는 긴 의자’와 같이 소용없다.”(“왜 지금 할 수 없습니까?”,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41쪽)는 것을 배웠다.

교육자로서 맥스웰 장로는 유타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교수로 자리를 잡았다. 그는 총장 보조, 학생처장이 되었으며 나중에는 부총장이 되었다.

그는 생애에서의 마지막 대회 말씀을 통해 이렇게 경고했다. “세상의 문제에 대한 세상의 해결책이 아주 효과적일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 복음만이 계속 의미가 있으며 대체물들은 효과가 없습니다.”(“주가 베푸신 자비를 기억하여”,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45쪽)



위: 증손자들과 게임을 하며.
 오른쪽: 유타 대학교의 학생처장 위원회에서 발표를 하며.
 맨오른쪽 위: 아래 콜린 헝클리
 맥스웰과 함께. 맨오른쪽 아래:
 1997년 4월 연차 대회에서
 말씀을 하며, 항암 치료로 인해
 머리카락을 잃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 “지금까지” 을 수
 있었다고 감사를 드렸다.



맥스웰 장로는 중요한 개념을 통찰력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발전시켰지만, 듣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은 바로 영이라고 가르쳤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영은 이와 같이 여러분이 간증을 전해 준 사람들도 여러분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들의 정신과 마음이 그것들을 이해하도록 도와 줄 수 있습니다.”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속죄에 대한 간증”, 리아호나, 2002년 4월호, 12쪽)

살아 있는 설교

맥스웰 장로의 가르침은 말로써 시작되거나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가르쳤다. “참된 제자됨에서는 말이 아닌 행위 그리고 묘사하는 것이 아닌 그렇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Becoming a Disciple*”, *Ensign*,

1996년 6월호, 14쪽)

그의 가장 감명적인 설교는 그가 살았던 방법이었다. 그는 그에게 닥쳤던 어려움에 관계없이 구세주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예수에 대한 유일하고 참된 경배는 그분을 닮는 것이다. 참으로 그분처럼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그분에



대해 간증하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간증을 전하는 특별한 방법이다.” (*Even As I Am* [1982], 2쪽)라고 믿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살아 있는 간증의 모범을 맥스웰 장로의 생애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암으로 인한 역경을 받아들이는 용기와 수긍하는 자세, 충실하고 지속적인 봉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었으며, 수백 만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원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가 보여 준 모범은 주님이 우리의 역경을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성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 활용하신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법사에 감사하라”,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98쪽)

맥스웰 장로는 주님을 사랑했고 또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돌아서더라도 그분은 여전히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는 염려라는 구름 때문에 그분이 우리

에게서 몸을 숨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장벽을 만드는 것이지만, 이런 장벽이 계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 그분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이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교회를 인도하십니다!”(“All Hell Is Moved”, 1977 Devotional Speeches of the Year [1978], 181쪽)

또다른 종류의 싸움

맥스웰 장로는 1996년에 처음으로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효과적 이기는 하지만 기력을 쇠하게 하는 치료를 통해 그는 그 후로 8년 동안 회복과 발병을 반복했다.

처음으로 백혈병 진단을 받기 몇 년 전 맥스웰 장로는,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더 행복하기는 하지만 “충실히 특별한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온유하게 섬기는 사람들을 항상 시험하시는 것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베드로, 앰울레크, 그리고 예수님이처럼 우리 각자도 어려움을 극복함으로써 “고통이 있는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우등으로 졸업하여 유명한 동창생이 될(Priesthood Brethren Asked to Be Christ's Servant”, Ensign, 1993년 7월호, 75쪽에서 인용) 수 있다.”라고 가르쳤다.

역경에 직면해서도 지칠 줄 모르는 성역을 통해 맥스웰 장로는 참으로 우등으로 졸업을 했다. 그의 죽음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그가 다른 사람의 죽음에 관해 말했던 것처럼, “절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 감사와 기대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한 무덤이 덮이는 것은 훗날 기쁨으로 활짝 열려질 문이 그저 닫힐 뿐이기 때문이다.”(“All Hell Is Moved”, 181쪽)

성취된 약속

2004년 4월에 있었던 마지막 연차 대회 말씀에서 맥스웰 장로는 “주님은 우리가 ‘잠들기 전에’ 우리가 가야 할 거리를 알고 계십니다.”라고 말했다.(리아호나, 2004년 5월호, 45쪽)

그가 머나먼 언덕에 있는 참호 속에서 오래 전에 했던 약속을 지키는 데는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했지만, 그가 필멸의 세상에서 봉사를 마치는 날까지 섬겼던 하나님께서는 그의 노력과 희생 하나하나를 헤아리셨다. ■



사랑하는 동료에 대한 다른 사도들의 찬사

장례식에서 연사들은 닐 에이 맥스웰 장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찬사를 보냈다.

고든 비 헝클리 대관장: “그는 병석에 있던 지난 8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성취했습니다. … 그는 고통 받는 자신의 이웃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들의 삶에 희망의 햇살을 가져다주었던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의해 그들의 고된 짐은 보다 가볍게 덜어졌습니다. … 그가 사랑했던 주님처럼 그는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 (사도행전 10:38) 했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주님의 사업에 대한 그 분의 봉사는 모범적이었으며 흡족을 데가 없었습니다. 만일 제가 닐 장로님이 안팎으로 미치신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요약해 달라는 부탁을 받는다면, 저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선택할 것입니다. … ‘나는 봉사했습니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은 그분의 조국과 교회, 그분의 가족과 이웃, 그리고 그분의 하나님께 봉사했습니다.”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그분은 훌륭한 사도, 비범한 인간, 모범적인 아들, 남편, 형제, 아버지, 할아버지셨습니다. 그분은 가르치는 훌륭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본받을 만한 훌륭한 삶을 사셨고, 훌륭한 마음씨를 갖고 계셨습니다. …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에게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그분은 완전한 인내로 자신의 마지막 나날들의 어려움을 견뎌 내셨습니다. … 닐과 콜린 두 사람은 …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속주라는 것과 그분이 속죄뿐 아니라, 온 인류의 부활도 이루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러셀 엠 넬슨 장로의 한국 방문



넬슨 장로께서 지난 8월 24일 한국을 방문하였다. 넬슨 장로는 러시아에서 역원 훈련 모임 등 일정을 마치시고 미국으로 귀국하는 길에 한국에 들렀으며, 4일동안 서울에 체류하면서 서울과 서울 서 선교부의 선교사 훈련 모임, 서울 성전 선교사 및 봉사자와의 모임, 성도들과의 특별 모임 외에도 한국 적십자사 총재 예방과 중앙일보 회장과의 오찬 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

✿ 8월 25일

오전, 한국 적십자사 이윤구 총재와의 예방

한국에 도착한 다음날, 넬슨 장로는 첫 일정으로 한국 적십자사의 이윤구 총재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는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고원용 장로와 이 총재의 주치의인 쇠석구 형제 및 한국 지역 공보 위원장인 배동철 형제가 함께 했다. 넬슨 장로는 러시아를 거쳐 한국에 오게 된 일정에 대해 설명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총재는 교회가 적십자사와 함께 한 봉사 활동에 대해 이야기했고, 특히 교회가 매년 갖고 있는 현혈 행사, 북한 동포를 돋기 위한 금식 현금 기금, 장애자를 위한 훈체어 기증 등에 감사를 표했다. 이 총재가 북한 동포를 돋는 일에 힘이 되고 싶다고 하자, 넬슨 장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했고 또한 넬슨 장로의 교회 본부 초청에 이 총재는 흔쾌히 응했다. 이 자리는 그

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교회와 한국 적십자사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중앙일보사의 홍석현 회장과 함께 오찬

한국 적십자사 방문 일정을 마친 넬슨 장로는 중앙일보사의 홍석현 회장과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는 고원용 장로와 주한미상 공회의소 명예 회장인 제프리 존스 형제가 참석했다. 이때 최근의 국제 정세, 특히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사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교회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황에 대한 소개도 있었다. 오랫동안 미국에서 생활한 경험 있는 홍 회장은 이미 교회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으며 이번 만남이 성도들의 신앙을 다시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했다. 역시 홍 회장에게도 교회 본부를 방문하도록 초청했고, 본인도 기회가 되는대로 들를 것을 약속하였다.

식사 후, 넬슨 장로는 서울 성전을 방문하여 서울 성전장단과의 모임에 이어 성전 선교사 및 성전 봉사자들과의 모임을 갖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마쳤다.

✿ 8월 26일

오전, 서울 및 서울 서 선교부 선교사 대회

선교사 대회에서 넬슨 장로는 선교 사업 방법에 대해 토론했다. 이 시간에 선교사들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자기를 소개하고 한국에 와서 선교사로 봉사하는 이유를 나누는 여러 가지 방법을 배웠다. 특히 넬슨 장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의사가 환자들에게 질문을 통하여 상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고원용 장로, 중앙일보사의 홍석현 회장, 넬슨 장로, 주한미상공회의소 명예 회장인 제프리 존스 형제(왼쪽부터). 넬슨 장로와 오찬전에 함께.

태를 파악하듯 사람들의 마음 상태와 상황을 알아낼 수 있는 적절한 질문을 하도록 권고했다. 또 세 시간 아침 학습을 강조하면서 그 시간이 선교사들의 미래와 성공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권고했다. 또한 그는 경전에 있는 색인과 다른 도움 자료를 사용하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세 가지 이유인 이스라엘 민족의 집합, 가족 인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강조하면서, 선교사들에게 회복된 복음을 더 잘 전하기를 부탁했다. 이러한 권고의 말씀 뒤에 이어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참된 교회에 대한 강한 간증은 선교사들의 영을 더욱 고약시켰다.

저녁 서울 지역 특별 모임

모임이 있었던 800석 규모의 영등포 구민 회관은 1200명 이상의 회원들로 가득 찼다. 넬슨 장로가 가족과 함께 회관을 들어오자 성도들은 다함께 일어서서 그를 맞이했다. 모임은 서울 남 스테이크에서 준비한 합창으로 시작되었으며, 넬슨 장로는 합창단에게 감사를 표하듯 일부러 몸을 돌려 음악에 귀기울였다. 주연사의 말씀이 있기 전, 처음으로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2보좌인 고원용 장로가 인사 말씀을 했고, 유쾌한 유머로 말씀을 시작하여 간결하게 자신의 간증을 전했다. 다음으로 서울 서 선교부의 링우드 부장 부부가 간증을 나누었다. 링우드 부장 부부는 올해 부름을 받아 지난 7월 한국에 왔으며, 특별히 링우드 자매는 넬슨 장로의 8번째 딸이다. 그녀는 함께 자라온 9명의 자매와 1명의 형제에 대해 이야기 했으며, 10명의 형제, 자매 모두가 가장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며 자랐다고 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한 대가족을 신앙과 사랑, 인내로 이끌어 오도록 자신의 부모님을 인도해준 복음에 감사했다. 자신의 부인을 아름답다고 하며 말을 시작한 링우드 선교부장은 한국어로 자신의 간증을 전했다. 다음으로 서울 선교부의 셀러스 선교부장 부부가 말씀을 이었다. 그들은 아주 간결하게 간증을 나누었는데, 특히 셀러스 자매는 간디의 일화를 예로 들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가지 큰 계명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렇게 5명의 연사들의 짧은 말씀이 끝나자 넬슨 장로는 겸손하게 연단으로 나왔다. 그는 무엇보다도 넘치는 감사와 사랑을 먼저 전했다. 또한 고든 비 힙클리 대관장과 이번 여행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넬슨 자매의 사랑도 함께 전했다. 이어 그는 함께 참석한 4명의 손자, 손녀들을 단상으로 초대하여 그들 각각을 소개하고 칭찬했다. 회관은 마치 넬슨 장로의 가정의 밤 시간에 초대된 듯한 분위기가 되었다. 손자, 손녀들을 자리로 돌려보내고, 그는 천천히 회관 안을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여기 모인 한국 성도들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장로로서 저의 의무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시작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되는 소중한 권고들로 이어졌다. 그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밀했으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 지역 특별 모임을 마치고 손자, 손녀와 함께 나오는 넬슨 장로

1.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2.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러므로 큰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우십시오.
3. 암식일을 지키도록 가르치십시오.
4.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진리와 그분의 속죄에 대해 가르치십시오. 그분이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성찬식은 이러한 그분의 희생에 감사를 표하는 시간임을 가르치십시오.
5. 예언자에 대해 가르치십시오. 고대에 예언자가 필요했듯이 오늘날에도 예언자가 필요합니다. 참으로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예언자였습니다.
6. 경전의 소중함에 대해 가르치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경전의 기록을 지키기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경은 다른 누구도 아닌 지금의 우리를 위해 보존되었습니다. 경전은 인생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가족 경전 읽기를 통해 말씀을 읽고 기록하도록 가르치십시오.
7. 신권의 권세에 대해 가르치십시오. 신권의 권능으로 가족이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8.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도록 가르치십시오. 그것은 주님의 축복이 약속된 계명입니다. 특별히 형제 여러분, 퇴근 후 몸과 마음이 지치지만 사랑하고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가족에게 돌아가십시오.
9. 성전의 목적에 대해 가르치십시오.
10. 선교사로서 봉사하기에 합당하게 자신을 준비하도록 가르치십시오.
11. 십일조의 축복에 대해 가르치십시오.
12. 지혜의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십시오.
13. 음란물은 아주 나쁜 악입니다. 철저히 피하도록 가르치십시오.
14.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십시오.
15. 훌륭한 시민이 되도록 가르치십시오. 우리는 사회에 봉사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법을 지켜야 합니다.

넬슨 장로에게는 10명의 자녀와 55명의 손자, 손녀들이 있다. 자신도 여느 부모처럼 아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인내했으며, 단순히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성도들 개개인의 사정을 세심히 배려하는 긴 축복의 말을 전했다. 모임을 마치자 합창단의 “전능하신 조상의 하나님”이 울려퍼졌고, 회중은 감사함과 아수움으로 다함께 일어나 넬슨 장로가 회관을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신앙으로 나아가

안성진 형제



“오늘의 시련은 내일의 강화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의로운 동기로 고무되었을 때 즉시 행동하라”는 생활 신조를 갖고 광주 스테이크에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안성진 형제.

논어, 맹자에 심취하며 군자가 되는 것을 꿈으로 가졌던 안성진 형제가 처음 복음을 접한 것은 1982년이었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안 형제는 친구의 집에 놀러 갔을 때 수북이 쌓여 있는 책들 속에 허옇게 먼지가 앉은 몰몬경을 발견했다. 그 책에 대해 잘 몰랐던 친구는 단지 “미국에 대한 예언”이라는 말과 함께 몰몬경을 주었고, 안성진 형제는 무작정 책을 읽기 시작했다. 처음 보는 책이었지만 니파이일서 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이 꽤 분명히 이해되었고 그 뒷 내용이 궁금해서 학교에 책을 갖고 다니면서까지 읽었다. 하지만 당시 안성진 형제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선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렇게 지내던 중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 하나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임을 알게 되었다. 그 친구의 소개로 안 형제는 처음으로 가정의 밤에 참석했다.

그 해 10월 31일 목포 와드에서 침례를 받은 안 형제는 자연스럽게 동생들을 교회로 인도하게 되었다. 바로 밑의 둘째 동생은 이듬해 5월 29일, 셋째는 6월 9일, 넷째는 6월 말에 침례를 받았는데 이전에 주말마다 하던 농사일을 제쳐 두고 교회에 가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안성진 형제와 동생들은 평일에 학교에서 돌아오는 대로 어머니를 도와 드리고 자신들이 해야 할 바를 다 하기 위해 노력했다. 차츰 어머니의 마음이 열려 자녀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잘 이해해 주셨고 1987년에는 침례까지 받았다.

전남 고흥군 일로읍에서 어렵게 자란 안성진 형제와 식구들은 가진 것은 없었지만 두터운 신앙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다. 형제들은 일요일 아침이면 교회에 가기 위해 늦어도 새벽 6시 30분에 집에서 나와 기차역까지 걸어 갔다. 기차에서 내린 뒤에는 또 한참을 걸어야 했고, 비라도 오는 날이면 우산이 몇 개 되지 않아 동생들을 업고, 예배당이 더러워질까봐 양말을 벗어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하지만 이런 경험들이 형제들에게는 지금까지 충실히 신앙 생활을 하는 데 밑거름이 되고 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 가장의 역할을 해야만 했던 안성진 형제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시기에 수없이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했다. 그는 어린 시절에 꿈속에서 보았던 어떤 분의 ‘준비하라라는 말이 현재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충실한 일꾼으로 어린 시절부터 준비해 온 안성진 형제와 그의 동생들은 현재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안성진 형제는 광주 스테이크장단 제2보좌로 봉사하고 있다. 그는 젊은 시절 서울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고 귀환 후에도 선교사의 영을 지니기 위해 계속 선교사 시절의 규칙을 지켜 왔다고 한다. 그는 광주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 선교 책임자 등의 부름을 수행했으며 송정 와드 초대 감독으로 봉사했다. 현재 이 와드에서는 둘째 동생인 안성현 형제가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다. 또한 셋째인 안진 형제와 넷째인 안남진 형제는 각각 서울동 스테이크 장위 와드와 광주 스테이크 송정 와드에 속해 있다.

최근 안성진 형제는 청소년 시절부터 시작한 기억의 책을 작성하며 같이 기록했던 글들을 모아 ‘미장이의 행복 사전’이라는 수필집을 발간했다. 후손들에게 물려 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담았다는 이 책은 안 형제가 미장이로 종사하던 시절과 감독으로 봉사하던 시절에 일어난 일들과 그 때 느낀 교훈들이 많이 담겨 있다.

안 형제 가족은 서로에게 감사한다. 형은 강요하지 않아도 복음을 배우고 잘 따라준 동생들이 고맙고, 동생들은 말이 아닌 모범으로써 자신들을 복음 안으로 인도해준 형이 감사하다.



안성진 형제와 그의 가족

몰몬경의 니파이처럼

석동진 형제와 임인숙 자매 부부

“남자는 열명(十)의 입(口)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힘(力)이 있어야 한다.” 한자로 男(남)자를 써 보이며 부친이 하셨던 말씀을 석동진 형제(41)는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도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의 책임을 강조하는 교회의 가르침이 조금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아내 임인숙 자매(37)는 몰몬경의 니파이처럼 아버지의 뜻을 쫓아 농토를 일구면서 자연 속을 벗어나지 않고 살아온 그런 석 형제를 세월이 흐를수록 더 사랑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본격적인 영농의 길로 들어선 지 열여섯 해만에 석 형제 내외는 논 2만여 평, 크리스마스를 겨냥한 수박 하우스 여러 동,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채소밭까지 일구는 주인이 되었습니다. 가장 깨끗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후에 들어선 곳이 이 영농의 길이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논밭에서의 일이 싫증날 줄 모릅니다.

오늘은 채소밭 한 켠에 열무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미 논산 지부 지



석동진 형제와 임인숙 자매가 함께 일구어가는 논에서

부장으로 봉사하기도 했던 그가 얼마 전에 바로 이 밭에서 스테이크장 님으로부터 지부장단 보좌 부름을 받았답니다. 농사일에 주말이 따로 있을 리 없지만 석 형제 내외는 아침 일찍 하우스에 공기틔워 주는 것 말고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기에 이런 큰 부름들도 주저없이 받아들이는 모양입니다. 이 열무가 다 자라는 11월이 되면 이미 순이 돋아난 다른 채소들과 함께 김장을 담아 여느 해처럼 선교사들에게도 보낼 참입니다. 추수를 한달 여 남겨둔 초기을 넘 논만큼 석 형제와 임 자매의 마음도 풍요롭기만 합니다.

서울 영어 연구회(SESA) 허용환 감독 인터뷰

최근 서울 지역에서는 회원들과 일반인들을 폭넓게 수용하는 영어 연구 동아리인 서울 영어 연구회(*Seoul English Study Association*, 이하 SESA)가 탄생했다.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서울 영어 연구회의 창단 회원 허용환 형제(현 신당 와드 감독)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기자: 먼저 서울 영어 연구회(SESA)를 간단히 소개하자면요?

허용환 감독: SESA는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함”이라는 모사이아서 2장 17절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어 연구 모임입니다. SESA에서는 매달 영어 강연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돋고 회원, 비회원들이 자주 만날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자: 임원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허용환 감독: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권 지도자로 봉사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중식 형제가 회장이고 부회장으로는 배동철 형제, 고문으로는 최육환 형제, 제프리 존스 형제(주한 미국 상공회의 소 명예 회장)가 수고하고 있습니다. 박성희 씨(한국 경제 논설 위원), 곽영훈 씨(MIT 한국 총 동창회장)가 자문 위원입니다.

기자: 지역 회원들은 어떤 면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허용환 감독: SESA 임원들은 매월 둘째 수요일에 신당 와드에 모여 지난 달 강연회를 평가하고 이 달의 강연회를 점검합니다. 강연회를 알리기 위해 전단지를 디자인하고 전달하는 회원들, 또 인터넷을 통한 광고를 도와주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 우편물 발송 및 전화 연락을 도와주시는 봉사자도 있습니다.

기자: SESA가 지금까지 해온 활동과 앞으로의 활동 방향은 무엇입니까?

허용환 감독: 8월 강연회는 SESA가 아홉번째로 개최하는 강연회입니다. 현재까지 아홉 분이 강연을 해주셨고, 연 1,500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강연회에 참석하는 회원과 비회원의 비율은 3:7 정도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강연회가 50회, 100회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미국 문화 체험의 일환으로 국내 거주 미국인과 함께 하는 토론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 및 미국 방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국내 신문과 방송을 통해 SESA를 알릴 계획입니다.

기자: 회원들이 SESA 활동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허용환 감독: 밸러드 장로님께서 “지금은 회원들이 더욱 담대하게 이웃에게 나아갈 때(엔사인, 2000년 11월)”라고 하신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회원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SESA를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고 강연회에 이웃을 초대하거나 함께 오시는 것입니다.

SESA는 공식적인 교회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장님을 비롯한 대부분의 임원이 교회 회원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 사업입니다. – 취재 꽈채림 자매

고 김호직 박사의 제45주기 추모 음악회

8월 29일 안식일 저녁, 서울 동 스테이크 길음 와드에서 “고 김호직 박사 제45주기 추모 음악회”가 있었다.

이 모임은 우리 나라에 참된 복음이 정착되도록 온 힘을 기울인 김박사의 뜻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추모 행사는 교회지도자와 고인의 가족, 초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길음 와드 정원에서 리셉션으로 시작하였다. 동 스테이크 청소년 협약단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가운데 많은 외부 초청 인사들이 참석하여 교회지도자들과 인사를 나누었고, 특별히 염보현 전 서울 시장, 조완구 전 문교부장관, 서찬교 현 성북구청장, 김현풍 현 강북구청장 등도 함께 했다.

주한미상공회의소 명예회장인 제프리 존스 형제는 선교사 시절 가장 많이 몰본경을 사람들에게 전한 것으로 “김호직상”을 받은 것을 회고하면서 김호직 박사를 추모했다. 예배당으로 자리를 옮겨 고인이 특별히 좋아했던 찬송가 77장 “예수께 오라”를 부르며 1부 순서가 시작됐고 한인상 형제의 축사가 이어졌다. 한 형제는 고인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다. “한국 전쟁 후에 모든 면에서 나라가 피폐했을 때, 마치 바닷가에서 모래를 찾는 것 같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범으로 보여준 분이었습니다. 고 김호직 박사의 보증이 없었다면 교회의 이름으로 데튼 장로, 하우威尔 장로(한국 초대 선교사)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서울대학교 총장과 문교부(현 교육부의 전신) 장관을 역임한 조완구 박사는 서울대 생물학과 후배로서 선배이었던 김호직 박사의 학계뿐 아니라 국가에 기여했던 공적에 대한 추모의 말씀을 하였다.

1부에서는 이뿐 아니라, “만방의 기를 세움”이라는 영상물을 통해 고인의 개종 과정과 개종 후의 삶을 소개하였다. 김호직 박사는 미국 코넬 대학에서 유학 중이었던 1951년 7월 29일, 뉴욕에서 차로 3시간 거리에 있는 사스케하나강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영상물은 소개했다.

2부는 음악회로 꾸며졌다. 서울 동 스테이크의 선교사 6명이 중창으로 “요셉 스미스의 첫 번째 기도”를 불렀고, 이어 초등회 중창단이



노래로 자식이 된 마음을 전하는 고 김호직 박사의 장남, 테너 김신환 형제

“힐라맨의 이천 용사”와 기타 여러 곡을, 스테이크 합창단이 “내 구주 살아계시다”와 “거룩한 성”을 들려주었다. 또한 아름다운 노래를 선사한 북 스테이크 자매 중창단 “위싱”과 김신환 형제의 제자인 오페라 가수 양효용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특별히 이번 추모 음악회에서는 고 김호직 박사의 장남인 테너 김신환 형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와 “오! 주여” 등을 불렀다. 김신환 형제는 “자식이 된 제 마음을 노래로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아버지를 향한 여러 형제, 자매님들의 사랑과 감사를 노래로 표현하고자 합니다.”라고 추모 음악회의 의미를 밝혔다. 행사를 마감하면서,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고원용 장로는 김호직 박사의 침례는 “전쟁과 수난으로 고통 받고 있던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단순히 신체적인 영양뿐 아니라 정신적 영양까지 전해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섭리”를 실현하는 순간이었다고 이야기하며, 우리 모두는 그가 사회적인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성도로서 보여준 겸손한 삶을 본받으며 그리스도의 배성으로 살아갈 것을 권고했다. 동스테이크장단은 1주일 후 김 박사의 가족과 함께 묘소도 참배했다.(이지은 기자)



“힐라맨의 이천 용사”와 기타 여러 곡을 선사한 서울 동 스테이크 초등회 중창단



교회 회원을 비롯하여 많은 외부 인사들도 함께한 추모식

부산 스테이크 종교 교육원 세미나리 경전 퀴즈 대회

부산 스테이크의 종교 교육원 세미나리 경전 퀴즈 대회가 8월 14일 수정 와드에서 있었다. 부산과 울산 지역의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경합을 벌인 이번 대회에서는 김해 지부의 최수홍 형제가 개인전 1위를, 광안 와드가 단체전 1위를 거머쥐었다. 특별히 가정 학습반과 새벽반에 모범적으로 참석한 5명의 청소년은 표창장을 받았다. 가정 학습반은 출석과 과제 수행을 각각 100% 달성한 안규진 자매와 최수홍 형제에게, 새벽반은 100%의 출석을 달성한 정상규 형제와 정소정, 박정음 자매에게 상이 주어졌다.

영호남 제주 합동 청년 대회

‘2004년 영호남 제주 합동 청년 대회’는 8월 4일부터 7일까지 한려 유스 호스텔에서 남해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부산과 마산, 전주와 제주 지역의 청년들이 함께 열의와 신앙을 키웠다.(전건우 기자) →

www.ldschurch.or.kr에서 자세한 기사 확인



남해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대회를 함께한 부산과 마산, 전주와 제주 지역의 청년들

서울 강서 스테이크 초등회 캠프

서울 강서 스테이크는 지난 8월 13, 14일 마포구 상암동의 난지 캠프장에서 초등회 캠프를 가졌다. 예년의 캠프와는 달리 텐트를 치고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는 활동으로 자립하는 법을 배우고, 자연 생태



마포구 상암동의 난지 캠프장에서 초등회 캠프를 가진 서울 강서 스테이크 회원들

학습과 체력 단련 프로그램을 통해 우정 나누었다.(정춘영 기자)

홍경실 자매 대한미국 미술 대전 서예 부문 입선

서울 남 스테이크 봉천 와드 홍경실 자매가 57세의 나이에 제23회 대한민국 미술 대전 서예 부문에 입선하는 영예를 안았다. 홍 자매는 15년 전부터 평생 교육에 관심을 갖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서예와 한국화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머니회에서 여는 소규모 강좌에 참여하다가 성실하게 수업에 임한 결과 3년만에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고, 지금은 신림동 문화의 집 한글 강사로서 한문 및 서예 강좌를 맡고 있다. 젊은이를 능가하는 예술에 대한 열정을 보인 홍 자매는 다음과 같은 말로 수상 소감을 대신했다. “배움에 게으르지 말라는 교회의 가르침에 충실하려 했어요. 예술가가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제게 있어 하나님 이상의 좋은 스승은 없었어요.”(천현정 기자)

청주 스테이크 노변의 모임

청주 스테이크에서는 8월 8일 네로우 대전 선교부장 부부와 함께 노변의 모임을 가졌다. 이 날 네로우 선교부장과 자매 그리고 두 자녀의 영적인 경험이 담긴 간증을 들을 수 있었다.(황선아 기자)

청주-제주 합동 청소년 대회

2004년도 청주-제주 합동 청소년 대회가 지난 7월 27일부터 3박 4일간 제주도 일원에서 열렸다. 39명의 청소년들과 20여 명의 고문들이 ‘의지’라는 주제로 모인 이 모임은, 해발 1950 미터의 한라산 등정, 진로에 대한 세미나, 부산 선교부 선교사들이 준비한 원바이원 모임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진행되었다. →

www.ldschurch.or.kr



한라산 폭포 앞에서 포즈를 취한 청주-제주 청소년들

각 지역 종교 교육원의 교육의 날 행사

예비 선교사와 부모를 위한 교육의 날 행사가 지역 종교 교육원 주최로 열렸다. 이 행사는 예비 선교사들에게 소망을 불어 넣어주고, 선

교사로서의 영적 준비를 돋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여러 귀환 선교사의 간증과 지도자들의 말씀을 듣는 순서로 이루어졌다. 광주 종교 교육원은 광주 스테이크 총장 와드에서, 동 종교 교육원은 동대문 스테이크 동대문 와드에서 부산 종교 교육원은 부산 스테이크 수정 와드에서 모임이 있었다.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기꾸찌 장로, 윌리암 워커 장로 고원용 장로를 비롯하여 민혜기 장로, 이용환 장로, 흥무광 한국 선교사 훈련원장 등 지역마다 다른 연사들을 초청하여 준비하였다. 이런 교육의 날 행사는 연 13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선교사 봉사에 대한 결심을 새롭게 하는데 기어하고 있다.(천현정 기자)

→ www.ldschurch.or.kr

2004학년도 2학기 우림 장학생 선발

소식

2004년 8월 22일 재단법인 우림 장학재단 이사회는 2004년 2학기 장학생을 선발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하고 해당 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소정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에 선발된 학생은 고등학생이 10명이고, 대학생이 18명이다. (오른편 장학생 명단 참조) 이 숫자는 전 학기에 비하여 4명이 증가된 것으로, 장학금의 기탁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구분	성명	학년	소속스테이크
고등학생	김고운	2	영동
	김성아	3	청주
	김준영	2	부산
	김혜경	3	부산서
	박재연	1	광주
	배인자	2	홍성
	이세현	1	동대문
	이승은	3	광주
	이예원	2	영동
대학생	이유은	3	서울
	김봉균	3	전주
	박정미	3	청주
	박성희	2	영동
	박지연	1	서울동
	여별구	1	영동
	오경권	4	전주
	오두리나	3	인천
	유효상	1	대전
	이수진	3	인천
	이승기	1	영동
	이영은	2	광주
	이준규	4	수원
	전진우	3	부산
	전소연	2	순천
	전영선	3	광주
	정동영	4	동대문
	최민희	4	순천
	황종숙	1	영동

바로 잡습니다

8월호 47페이지 “알고 계십니까?”란의 8월에 일어난 일에서 몬순 부대관장의 출생일은 1827년이 아닌 1927년입니다.

9월호 16페이지 “말일에 부름 받은 최초의 선교사” 기사 가운데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1829년 5월 29일은 1829년 5월 15일입니다.

광고

- 한국 공보 위원회에서는 한국 교회 회복 50주년 기념 화보집을 만들기 위해 사진을 모으고 있습니다. 초기 성도들의 모습이나 교회 건물, 여러 가지 모임 장면이 담긴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화보집 제작에 사용된 모든 사진은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성도의 몇 창간호 또는 초기 발행본을 소지하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보내실 곳

서울시 성동 우체국 사서함 22호(우: 133-600)

전화: 02-2232-1441(교환 550)

서울 성전을 방문한 러시아 연방의 블라디보스토크 선교부 말일성도들

지난 8월 9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선교부의 말일성도 20여 명이 서울 성전을 방문했다. 이 시간은 한없는 감회와 눈물 흘림의 연속이었다. 마지막 날의 간증 모임에서 “성전은 시내산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의식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기를 바라는지 더욱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천국과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의식을 받으면서 조상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았고, 해의 영광실에서는 복음의 충만함과 완전함을 느꼈습니다. 성전 건물의 곳곳마다 주님의 영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런 성전이 있는 한국 성도들이 부럽습니다”라고 간증했다. 또한 그들이 머무는 동안 음식을 준비해 준 서울 지역 스테이크의 상호부조회 자매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블라디보스토크 선교부에는 1개의 지방부와 7개 지부가 있고 750여 명의 회원과 약 35명의 선교사가 있다. 5년 전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2004년의 7월 말까지 개종자 수는 약 140명이다.

서울 성전 앤다우먼트 의식 시간표

	화	수	목	금	토
오전		6:00			6:00
					8:00
	10:00	10:00	10:00	10:00	10:00
오후	1:30	1:30	1:30	1:30	1:30
	2:30	2:30	2:30	2:30	2:30
	3:30	3:30	3:30	3:30	3:30
저녁	7:30부터	7:30부터	7:30부터	7:30부터	7:30부터

시작 시간 15분 전까지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수원 스테이크

권선 와드 → 곡반정 와드

감독: 장사성

용인 지부와 매단 와드 → 신갈 와드

감독: 이경준(전임자) 용인: 곽영현, 매단: 박삼곤)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해외 1명



이지연

강서 스테이크
김포 와드
유타 텁풀 스웨어
선교부